

# 도내 대학과 지역인재 양성 힘 모아

### 전북자치도교육청, 오늘까지 대학 입학처와 협의회... 전북대 등 5곳 참여 2025 대입 맞춤형 진학지도 계획 안내·지역대학 입학전형 분석 등 협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 지역 5개 대학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6~7일 이틀간 원광대, 군산대, 전북대, 우석대, 전주대 등 도내 5개 대학 입학처와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

한 대학 입학전형 마련 및 대학·학과와 연계한 진로·진학 체험처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이는 전북교육청과 대학 입학처가 공동 논의를 함으로써 지역 대학의 위상에 맞는 대입전형을 설계하고, 중·고등학교의 진로진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의 내용은 △2025 대입을 위한 맞춤형 진학지도 계획 안내 및 교육청-고교-대학 협력 방안 모색 △고교와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 대학 입학전형을 위한 분석과 제언 △진로·진학 체험처 교육청-대학 연계 발굴 등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각 대학의 입학전형을 분석하고, 지역인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적극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유호선 중등교육과장은 "전북교육청은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대학과 협력해 교육발전재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도내 대학과 협력해 우리 지역 학생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진로체험처를 마련하는 등 대학 입학의 문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대표단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대학교를 방문해 대학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 전북대, 영국 주요대학과 교류협력 확대

### 브루넬·에딘버러대 등과 학생 파견·인적 자원 등 교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영국 우수 대학들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6일 전북대에 따르면 영국 브루넬대학교(Brunel University), 에딘버러대학교(The University of Edinburgh), 캔터버리크라이스트처치대학교(Canterbury Christ Church University)와 학생 파견을 비롯해 인적, 물적 자원을 교류하기로 했다. 먼저 브루넬대학교는 지난해 4월 업무협약(MOU)을 체결, 2023년 동계 방학에 어학연수를 위해 학생 58명이 파견된 이후 2024년 1학기에 36명 등 경영·경제 분야 학생 교류 추가 진행을 협의했다. 또 캔터버리크라이스트처치대학은

학생 파견 등 교류를 시작하기로 협의하고,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다. 끝으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대학교는 올해 신규 MOU를 체결할 예정으로, 전북대의 서명만 남겨 놓은 상태다. 이 대학은 1582년 왕실이 설립한 명문 대학(QS20위)으로 향후 하계학교(Summer School) 프로그램과 어학연수 파견으로 실질적인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된다. 전북대 조화림 국제처장은 "이번 영국 대학들과의 교류 개척으로 학생 영위 능력 향상되고, 세계시민으로서 안목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들 대학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전북대가 글로벌 Top 100으로 비상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6일 전주비전대학교 비전관 대강당에서 학위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우병훈 총장과 학교법인 차준순 이사장, 졸업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비전을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 전주비전대, 2023학년도 학위수여식... 총 1176명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6일 오전 비전관 대강당에서 학교법인 차준순 이사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학년도 제47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은 총 1176명으로 전문학사 899명, 학사 277명 등이다. 전하림(자동차공학과 학사), 서가영(신재생에너지과 전문학사) 학생이 졸업생을 대표해 학위증을 받았으며, 정한빈(응급구조학과), 김민혁(보건행정학과) 학생이 각각 이사장상과 총장상을 수상했다. 특히 전주비전대 학사지원처에서는 학과별로 졸업식을 원하는 경우, 5~7일까지 각 학과의 전용강의실에서 학위수여식을 분산 진행하도록 배려했다. 우병훈 총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갈 졸업생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한다"며, "자, 이제 넓은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앞날개를 활짝 펴고 시동을 거십시오. 비전을 행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라는 삼행시와 더불어 축사를 마쳤다. /장은성 기자

## 자치도교육청,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단행

### 총 1458명 규모... 3월 1일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년 3월 1일자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승진과 전직, 전보, 정년퇴직 등을 포함한 총 1,458명 규모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에 윤영임 정책기획과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 김정기 전주고등학교장,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최용훈 정읍교육장,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송승용 서신초등학교장,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추영곤 전주안산서초등학교장을 각각 임용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에는 채선영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민주시민교육과장에는 김지유 전주이초등학교장을 임용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에는 조현정 전주호성중학교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에는



는 강양원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장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3월 1일자 교장·원장 승진 48명, 교감·원감 승진 48명이며, 2월 29일자로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은 모두 150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역량 중심의 인사를 통해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실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특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라 주어인 교육자치권을 확대하고, 전북교육을 더욱 세우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서거석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전했다. 한편, 교장 및 교육전문직원, 수석교사 임명장 수여식은 오는 14일 실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전주전대, '취업 Dream' 프로그램 진행... 졸업생 대상

전주전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6일 졸업생을 대상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 취업 Dream'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포토부스와 함께 △졸업생 사후관리 프로그램 안내 △창년고용정책 안내 및 연계 △취업지원서비스 안내 △심층상담 연계 지원 등 취업 관련 서비스 및 청년고용정책 안내에 대한 다각적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취업지원과 학생은 "졸업 후에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덕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앞으로도 졸업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을 위한 최적화 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더욱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공공의료 인재 육성 대응책 논의

###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정기회의 인턴·전공의 정원 상향, 지역수가 제도 도입 등 건의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일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서 2024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총장들은 공공의료·필수의료 인재 육성 관련 공동대응 방안 등에 논의했다. 특히 총장들은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따라 지역 대학병원 인턴·전공의 정원이 지역 의대 정원보다 한참 모자라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는 △지방 거점국립병원 인턴·전공의 정원 상향 △지역수가 제도 도입(의료취약지역 의료수가 인상 등) △공공의료·필수의료 교육과정 강화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한편,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10개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로, 회원교인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회장교)·충남대·충북대 등이 국가거점국립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활동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이만수 전주교육장 사회복지시설 방문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만수)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삼성 휴먼빌과, 호성보육원을 각각 방문해 격려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 휴먼빌과 호성보육원에는 초·중·고교 학생 89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에 전주교육지원청은 매년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매년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전주교육지원청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만수 교육장은 "나눔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고 각자의 꿈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2024년 교육공무원 종합운영계획 심의 확정

### 전북자치도교육청, 처우개선·채용 관련 사항 등 반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년 교육공무원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교육공무원 종합운영계획은 현장 의견,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협의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단체협약체결에 따른 처우개선 사항(기본급 및 각종 수당 인상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공적채용규

칙 제정에 따른 채용관련 사항(채용계획 수립, 채용 공고 및 심사위원 구성 등) △방학중 비상근 노동자의 위협수당 지급 방법 개선 △노동시간이 확대된 돌봄전담사 근속년수 재산정 방법 등 업무 개선사항 등을 반영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2024년 종합운영계획은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현장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노사 협의를 통한 종합운영계획이 일선현장에서 교육공무원의 노무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원 심화 연수

### 전북자치도교육청, 해외 교육사례·중독자 회복사례 등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일 참초나래 시청각실에서 2024년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원 심화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전북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연수는 중앙교육연수원 또는 전북교육연수원의 마약류 예방교육 및 지도 역량강화 연수(15차시, 원격연수)를 사전에 이수한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연수에는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 교원 18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마약류 관련 국내외 동향 및 해외 교육사례 △마약류 특성 및 관련 사례 △마약류 중독자 회복사례 등이다. 특히 신태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장, 박성수 세명대 경찰학과 교수, 황성재 전문강사 등 현장 전문가들의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산학협력 활동 우수 교원 시상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LINC 3.0 사업 산학협력 참여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 참여 우수 교수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시상식은 LINC 3.0 사업단(단장 김상진)이 지난 2022~2023년도에 LINC 3.0 사업과 관련해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취·창업 교육, ICC, 기술개발과 지도, 특허, 기술이전 등에 대해 참여 교수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활동이 우수한 교수 20명에게 슈퍼스타상(10명)과 스타상(10명)을 시상했다. /장은성 기자



이날 시상에는 전체 참여 교수 232명 중에 한식조리학과 신정규 교수가 최고의 마일리지 점수(489점)로 슈퍼스타상을 수상했으며,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상위 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장은성 기자